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미리카냥 스타서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있다.

# 17일 간 열전 리우올림픽 폐막

### ‘금메달 10개 이상 달성’ 목표 한국 가장 적은 수 메달 획득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

지난 6일(한국시간) 시작된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22일 오전 8시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린 이후 120년만에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 이번 리우올림픽은 ‘새로운 세상(New World)’이라는 슬로건 아래 17일 간 열전이 펼쳐졌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 달성을 목표로 잡은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수확하며 아쉬운 성적을 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 5위에 오른 것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금메달 10개 이상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 속에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금 6개·은 6개·동 7개·합계 19개) 이후 32년만에 가장 적은 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다만 종합 8위에 오르면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이번 올림픽까지 올림픽 4회 연속 종합 1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

역대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유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16년만에 ‘노골드’에 그치며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로 마감한 것이 뼈아팠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부터 베이징 대회에 실패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배드민턴도 동메달 1개에 머물렀다.

단체 구기종목에서 44년 만에 메달 획득에 실패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배드민턴도 동메달 1개에 머물렀다.

반면 양궁은 올림픽 최초 전 종목(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효자종목’의 면모를 이어갔다.

펜싱에서는 한국 남자 에페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박상연(21·한국체대)이 금메달을 이었고 사격의 진중오(37·kc)는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50m 권총 금메달을 일거 사격 역사상 최초로 개인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올림픽 사상 개인 종목 3연패도 최초였다.

112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골프에서는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금메달을 추가했다.

메달 레이스 후반에 가세한 한국 태권도는 5인방이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태권도의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 오혜리(28·춘천시청)가 모두 금메달을 땀고, 남자 태권도의 김태훈(22·동아대), 이대훈(24), 차동민(30·이상 한국가스공사)

이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통의 ‘스포츠 최강국’ 미국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38개 등 총 121개의 메달을 쓸어들여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에 종합우승을 내줬던 미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상에 섰다.

영국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7개를 따 종합 2위에 올랐다.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우승한 이후 최고 성적이다. 4년 전 인방에서도 종합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베이징올림픽 종합우승, 2012년 런던올림픽 종합 2위에 올랐던 중국이 금메달 2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로 뒤를 이었다.

개최국 브라질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로 종합 13위를 차지, 자국 올림픽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다.

차기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1개로 종합 6위에 올랐고, 금 2개, 은 3개, 동 2개를 따낸 북한은 종합 34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개인혼영 200m, 접영 200m,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5관왕에 등극, 대회 최다 관왕의 영광을 누렸다.

이미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최다 금메

달 기록을 보유 중이던 펠프스는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수를 28개(금 23개·은 3개·동 2개)로 늘렸다.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육상 남자 100m·200m·400m 계주 금메달을 쓸어들여 육상 단거리 3연속 3관왕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썼다.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설픈 준비로 인한 잡음과 자국민들의 저조한 관심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페리트리스 카니발 스쿨의 최고 책임자인 로사 마젤란이 총감독을 맡은 리우올림픽 폐회식은 대회에서 열정을 쏟아낸 선수들과 관객들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심바 축제’로 장식됐다.

개회식에서 강조됐던 친환경과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행사도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에두아르투 파에스 리우 시장으로부터 대회를 받아 고이게 유리코 도쿄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2년 뒤인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며 2020년 하계올림픽은 일본 도쿄에서 펼쳐진다.



### 전주신동초 양궁부 전국대회 2연속 제패

전주신동초등학교(교장 강권현) 양궁부가 전국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제28회 회장기 전국남·여초등학교양궁대회’에 출전한 신동초 양궁부는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신동초 강권현 교장은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준 덕분에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선수를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박미영 감독교사와 동경진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전주시민축구단, 홈경기 영광FC에 3대2 승리

전북 유일 남자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주시민축구단은 21일 전주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K3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영광FC를 3대2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한 전주시민축구단은 승점 30점(9승3무3패)으로 5위를 기록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전반전 김신규의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6분과 후반 22분, 연달아 골을 허용해 1대2로 역전 당했다.

역전을 허용한 전주시민축구단은 다시 팀을 재건하며 경기에 나섰고 2골을 내리 뽑으면서 진땀을 거뒀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만족 한다”면서 “선수들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경기에서도 꼭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익산 이일여고, 대통령기시도탁구대회 3관왕

전북 익산 이일여고가 제22회 대통령기시도탁구대회에 출전해 여고부 단체전과 개인전, 개인복식 부문에서 왕좌에 올랐다.

이일여고는 단체전 결승에서 서울독산고를 맞아 3대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3학년이 재학생인 한미정 선수는 경기 문신수역고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박희진 선수와 유주화 선수는 개인 복식에서 대구상서고를 3대1로 제압하며 여고부 전종목을 싹쓸이 했다.

이일여고 탁구부의 최영규 감독은 “전국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